

설 명절 편하고 안전하게

무주군,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 물가관리 합동 지도점검 전통시장 이용촉진 주력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

무주군은 편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및 생활안정화를 위해 경찰과 세무, 위생,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은누리 상품권 구입을 장려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직거래장터 이용을 촉진시키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밀·도매 등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전통시장과 상가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중에는 군청 내에 교통, 재해재난, 쓰레기, 상하수도, 의료, A방역상황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각 읍·면에서도 취정수장, 미화원, 상수도 담당자 등으로 각각 별도의 상황반을 꾸려 생활민원(각 읍·면 민원처리 시스템 유지, 상수도과 쓰레기, 가로등, 가스공급 등)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터미널과 마을진입로 등 읍면별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명절음식을 쓰레기 감량을 위한 캠페인과 과대포장 단속도 강화한다.

도로정체 및 혼잡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쓰레기 이동처리반을 운영하는 한편,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해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귀성객들을 비롯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우회도로로 교통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강설 및 빙판 등 악천후에 대비한 교통 대책도 수립·추진한다.

또한 긴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반딧불식식지와 군 홈페이지 등에 연휴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119 구급차 등과 연계한 긴급환자 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A1 방역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이동통제·거점소독초소와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짚는 교육도 추진한다.

무주군 관계자는 “분야별 꼼꼼한 점검과 체계적인 계획이 토대가 된 현장행정을 통해 편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족들을 맞는 주민들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도, 관광객들도 모두 무주에서의 기분 좋은 설 연휴를 기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연매출 100억 눈앞

(전주시) 지난해 94여억원 기록... 2012년 이후 5년간 누적 매출액 357억 달해

윤진농협 직매장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2년 10월에 문을 연 완주군의 전주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연매출 100억원 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94억 1700만원을 기록했다.

효자동 직매장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 문을 열었는데, 첫 해 두 달 동안 4억 44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후 2013년 78억 3000만원으로 매출액이 급성장한 데 이어, 2014년 87억 8000만원, 2015년 92억 1900만원 등을

보이면서 대표적인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축 이전이란 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에게 다가간 결과, 연 매출액이 94여억원을 기록하면서 조만간 100억원 시대를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효자동 품림아이원아파트 맞은편 효자동2가 163-1번지 일대에 1·2층 1600㎡ 규모로 지어낸 효자동 직매장은 1층에는 직매장을 비롯해 정육과 제과·제빵,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또한 2층에는 콩을 소재로 한 소이푸드 사업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완주지역 농가의 안정된 소득 보장과 함께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효자동 직매장은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 레스토랑까지 운영되면서 완주군 직매장의 매출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에 보답하도록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2단계 성장통력화하는 정책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개량·빈집정비 이달 31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올해 주택개량 130동, 빈집정비 90동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19일 군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용자 및 빈집정비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완주군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아 2월 중순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130동으로 지원금은 최대 2억원이며,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2%, 1년 거주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주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조건은 본인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



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용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농협에 용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이전이라도 사업 대상자와 농협이 협의를 통해 선금과 중도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주택면적은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빈집정비사업은 총 90동으로,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원조건은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최대 300만원, 기타지붕 건물은 최대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개발과(290-2873) 및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 용담면, 대표작목으로 깻잎 육성

깃잎작목반, 정기총회 개최

진안군 용담면(면장 육원문)은 깻잎을 용담면의 대표 작목으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 용담깃잎작목반(대표 서대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 영농설계와 함께 우수한 품질의 깻잎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물론 깻잎시설과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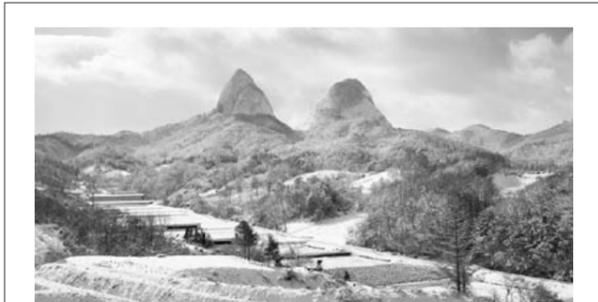
이 자리에는 기존 깻잎농가와 새로이 깻잎작목반 회원으로 가입해 농사를 시작하는 6농가도 함께 참석해 선배 농가들의 노하우를 경청하기도 했다.

용담깃잎작목반은 2월중 깻잎재배 선진지인 밀양 깻잎재배단지 방문할 계획이며, 회원 상호간에도 수시로 깻잎재배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정보를 익히고 정기모임 횡수도 늘려 상호 의견교환과 정보공유를 통해 명품 깻잎을 생산해 나갈 계획이다.

육원문 면장은 “지난해 용담면 하류부지에 깻잎재배단지가 조성되어 깻잎 재배농가와 시설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면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깻잎을 비롯한 원예시설농업 규모를 더 확대해 용담면 수산물로 협소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마이산으로 놀러 오세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100선 선정

도립공원 마이산이 2017~2018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이하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우뚝 섰다.

한국관광 100선은 지난 2013년부터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해 우리나라 대표관광지 100곳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인지도와 만족도, 방문 의향, 통신문·네비게이션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

진안 마이산은 프랑스 여행안내서인 미슐랭 그린가이드에서 최고 점수 별 3개를 받은 바 있으며, 매년 4월 마이산 남부에서 석탑군을 잇는 2.5km의 벚꽃터널 같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또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생태관광 자원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이다.

이항로 군수는 “한국관광 100선 선정은 계기로 더욱 강화된 인프라 시설 확충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진안고원 마이산을 대표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5일~5월 15일까지

무주군은 이달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황정수 군수를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과 지상진화, 보급지원, 공중진화반으로 구성이 됐으며, 올해는 특히 산불방지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하고 산불로부터 2017 무주 WI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태권도

특별블로그

장수 장계면, 나눔 캠페인서 이웃돕기성금 885만원 모금

장수군 장계면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화제다.

장계면의 경우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년도 이웃돕기 성금 6,970만원을 목표로 정했으나 마을 방문 및 홍보활동과 이장단과의 연합모금활동을 전개해 당초 목표액을 훨씬 넘은 885만원이 모금됐다.

특히 몇 번째 이어오는 열풍 없는 천사가 올 해도 어김없이 성금을 기탁했고, 81세의 고령인 송창용 할아버지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남아있는 날이라도 착한 일 하나라도 꼭 해 보고 싶다.”며 1년 동안 매일 모은 용돈 12만 원을 면사무소에 방문, 기탁했다.

이길재 면장은 “최근 경기 악화와 경제적 불황에도 면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모여서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은 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후원문의는 전화(063-350-2911)로 연락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진장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년중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신고자격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위반행위 접수방법으로는 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방문 Fax,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과 포상금의 거쳐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설 연휴 정상 진료해요

장수군, 27~30일까지 비상 진료체계 가동

장수군 보건의원은 설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군은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해 군민들이 진료와 의약품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한다.

장수보건의원 비상진료대책에 따르면 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처치 지도, 질병상담, 병원·약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원 17개소와 민간의료기관 9개소, 약국 10개소 등 설 연휴기간에 응급환자 진료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당번 1/4 의료기관과 약국은 설 연휴 기간 정상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관내 전체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에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대형사고 발생시에도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근무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은 군과 각 보건소,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화는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e-gm.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을 이용, 실시간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당차로 안내하고 있다.

이의 자세한 문의는 장수보건의원(063-350-3119)로 연락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자봉센터, 봉동읍서 떡국나눔 봉사활동 펼쳐

완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직무대행 이상운)와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훈)가 함께 진행하는 2017 신년맞이 어르신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지난 19일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나눔 봉사는 사)전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박차를 이용해 14개 시·군에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은 완주군 어르신 150여명을 모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나눔 활동을 했다.

또한,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손뜨개봉사단이 손수 만든 150여 개의 따뜻한 목도리를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해 드렸으며, 색소폰 공연과 웃음 치료 등 다양한 재능나눔 기부 활동으로 더욱 빛나고 훈훈한 봉사가 됐다.

이 날 자원봉사에 참여한 완주지역 사랑봉사단(단장 국인숙)은 “우리 지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큰 행복이고,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완주군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로 하는 봉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경천면 남녀 의용소방대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완주군 경천면 남녀 의용소방대(소방대장 정택) 대원과 지역주민, 공무원 50여명은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설맞이 고향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경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국토대청결운동을 19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은 구룡전변과 면사무소 주변 도로에 불법으로 투기 되어 방치된 담배꽂초와 폐비닐, 농약병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와 매립용 쓰레기 1.5톤을 수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목장, 쌀 319포 기탁

한국미사회 장수목장(목장장 박상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19일 장수군 청광에서 벳트러람 장수와 함께 하는 2017 설 명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펼쳤다.

장수목장은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장수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백미 319포 1,100만원 상당을 불우한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생계곤란 가정에 골고루 나눠줄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